도의 국사 다례재…“미래천년 열겠다”

조계종, 6월 7일 조계사서 다례
성파 스님 “종조 은혜 보답하자”
진우 스님 “국민 마음평안 화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조 도의 국사 다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모사를 올리고 있다.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시원 도의 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 국사 다례’를 봉행하고 도의 국사가 전한 선풍을 선양했다. 다례에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각 포교신도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종정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자광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도의 국사가 남긴 법인을 추모했다. 성파 대종사는 “종조의 정통법인을 사승, 가지영역에 종당을 게양하니 팔백제자들이 종문을 장엄했고 종문에 백화가 난만하고 눈 밝은 선장들이 대대로 배출돼 오늘에 이르렀다”고 상찬하며 “후학들이 종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진전사지를 복원하고 매년 추모다례를 봉행하며 법은을 기리는 조주청다를 올리니 전 종도들은 큰 은혜를 깊이 새겨 그 법을 만고에 유전케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광 스님은 대독을 마친 뒤 “조계사 대웅전 앞 나무가 수백년 동안 저 자리에 있는 것은 뿌리가 튼튼하고 깊기 때문”이라며 “우리 종단도 조사님들의 뿌리를 깊이 선양하고 빛나는 조계종도가 되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국사께서는 중원의 육조 대사-마조 선사로 이어지는 법등을 이어받아 해동 땅을 지혜의 등불로 환하게 밝혔고 그 가르침에 따라 수많은 눈 밝은 선지식들이 시대를 이어가며 대대로 출현토록 했으니 이는 인재불사의 시작”이라며 “역사와 전통, 수행법을 오롯하게 이어오는 조계종은 종조의 종지와 역대조사의 가르침을 통해 사부대중은 물론 전국민의 마음평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일상생활 속에서도 큰 의지처로 자리잡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에 이르러 모든 것이 복잡하게 서로 얽히면서 중중무진의 번뇌가 서로 연기작용을 일으키는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 이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이의 화두”라고 강조했다.

선명상 수행법을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일을 종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진우 스님은 “이는 종조 도의 국사의 뜻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며 동시에 과거천년을 이어받아 미래천년을 열어가는 과업”이라며 “종조께서는 이런 발원을 자비로 섭수, 대업이 원만 성취돼 세계만민에게 회향될 수 있도록 가호해달라”고 말했다.

도의 국사는 통일신라시대 스님으로, 중국의 조사선 전통을 최초로 국내에 들여와 선법을 펼쳤다. 당나라에서 37년간 머물며 수행하다 821(신라 현덕왕 13)년 귀국, 조계선법을 펼치려 했으나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탄식해 설악산 진전사에서 40년간 주석하다가 제자인 억성염거 선사에게 전법하고 입적했다. 국사의 선법은 억성염거 선사를 거쳐 보조체징 선사에게 전해져 시흥했다. 체징은 장흥군 가지산에 보림사를 창건, 신라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 일파를 형성하고 선풍을 널리 진작해 오늘날 조계종의 시원이 됐다. 조계종은 1941년 제정된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산태고사법’에서 명시한 도의 국사 기일인 음력 5월 2일에 맞춰 매년 다례를 봉행하고 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중신회장 입후보

6월 27일 대의원총회서 선출



조계종 제28대 중앙신도회장 후보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사진〉이 단독 입후보했다.

중앙신도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호)는 6월 10일 “제27대 회장 임기가 2024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제28대 회장 선거후보 등록을 6월 7일 마감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 후보자격 심사를 통해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의 후보 등록을 최종 확정했다”고 공고했다.

장세철 제9교구본사 동화사 신도회장(고려건설 회장)은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후보자격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정원주 후보는 2014년 BBS 광주불교방송 감사를 역임하고 2022년 불교리더스포럼 경제분과 수석부회장, 2024년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부대표로 활동하면서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재적사찰은 제21교구 개천사다.

정 후보는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했다. (사)한국청년회의소 부회장, (재)광주NGO 시민재단 부이사장, (재)한국청년정책연구원 이사장, (사)광주국제협력단 상임이사, 김홍빈 대장원정대 단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 도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중흥그룹 부회장, ㈜헤럴드미디어 그룹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장, 대우건설 회장 등을 맡고 있다.

한편 제28대 중앙신도회장을 선출하는 제27-5차 대의원총회는 6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치러진다. 김내영 기자

포교원, 불교크리에이터 5기 위촉

한산 스님 등 5명 선발
“재미있는 불교 전하겠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 콘텐츠를 제작해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불교크리에이터’가 새롭게 위촉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6월 11일 서울 한국역사불교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불교크리에이터 5기 위촉식을 열고 신규 불교크리에이터들에 위촉장과 활동 지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5기로 선발된 불교크리에이터는 개인 4명, 1개 팀이다. ‘하루에 하나 일주일 명상’으로 일반 대중에 쉽게 명상을 소개하는 한산 스님, 청년포교를 위한 웹툰 및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마음 수업’의 한정우 씨, 인스타툰 카드뉴스로 법구경 구절을 안내하는 ‘곰과 냥이의 법구경을 통한 현실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의 팀 아나레(박소현·류현석), 53선지식을 토대로 감각적인 일러스트를 기획한 ‘선소하다’의 김백설 씨, 불교 교리를 녹여낸 레트로 스타일 작품을 선보이는 ‘묘한 사후세계’의 박지원 씨다.

전문가와 교무위원이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크리에이터로서 꾸준한 발전가능성이 있거나, 도전적이고 참신한 시도가 돋보이는 기획서를 중심으로 선발한 결과다.

이날 선업 스님은 “이번에 선정된 5기 불교크리에이터는 역량 있는 전문가들로, 불교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많은 이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능력을 맘껏 발휘해 한국불교 발전은 물론 국민의 마음 건강과 행복 증진에 일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음 수업’의 한정우 씨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인스타’ 만화를 그리고 있다. 나 역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불교를 만나 치유했다”며 “비슷한 고민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정각회 신임회장에 이헌승 국회의원

“불교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 22대 신임 회장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소임을 맡는다.

4선 중진 의원인 이헌승 정각회장은 정각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부산 삼광사 신도회장을 지냈으며 국회 보좌관 시절, 불자 모임 ‘법우회’에서 활동하는 등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졌다.

이헌승 의원은 “불교계와 긴밀히 소통, 불교를 외호하고 주요 사안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임회장 취임법회는 6월 말 열릴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사지 출토 성보 소유권 확보 나선다

매장문화재특위, 6월 12일 회의
현장 방문 추진…법 개정 요구

조계종 사찰 소유 토지에서 유물이 발견됐을 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사찰매장문화재관리를위한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법 미비로 국가에 성보가 귀속되는 현행법의 현황을 바로잡고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앙종회 사찰매장문화재관리를위한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소유권 여부를 심사한 후 소유권이 결정된다. 해당 지자체에서 발견 사실을 90일간 공고한 후 원소유자가 나타나면 절차에 따라 돌려주고 소유권 주장이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된다.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발굴된 유물의 소유자가 사찰임이 명백함에도 소유권 판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에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은 물론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정부와의 협조 체계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위가 구성된 배경과 사찰매장유산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했다. 이어 총무원 문화부 문화재팀,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등과 연계, 대표 사례를 찾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성보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장 호암 스님은 “불상은 문화재이기 이전에 예경 대상이므로 수장고에 있어선 안 된다”면서 “사찰 복원 불사 등 불교계도 노력을 기울여 사지에서 나온 성보들이 불교 소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장 방문과 세미나 등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찰매장문화재관리를위한특별위원회는 2023년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구성됐다. 위원장 호암 스님을 비롯해 진각 스님(통도사), 삼조 스님, 종봉 스님, 허허 스님, 정관 스님, 기획실장 우봉 스님, 문화부장 혜공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임은호 기자

